

# 등록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

|          |             |
|----------|-------------|
| 회의소집통보일자 | 2014년 1월 3일 |
| 위원정수 7명  | 재적위원 7명     |

- (1) 일 시 : 2014년 1월 6일(화) 14:00  
 (2) 장 소 : 기획실장실  
 (3) 참 석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직급 및 직책      | 서 명 |
|-----|-----|-----|--------------|-----|
| 참석자 | 위원장 | 김지범 | 기획실장         | 김지범 |
|     | 위원  | 이종석 | 학생지원처장       | 이종석 |
|     | 위원  | 구자윤 | 학생지원과장       | 구자윤 |
|     | 위원  | 김현준 | 총학생회장        | 김현준 |
|     | 위원  | 이예솔 | 총학생회 부회장     | 이예솔 |
|     | 위원  | 전지상 | 총학생회 총무부장    | 전지상 |
|     | 위원  | 김성수 | 이화다이아몬드 총무이사 | 김성수 |

## (4) 안건 및 심의 결과

가. 안 건 : 2014학년도 등록금 심의

나. 심의결과 : 2014학년도 등록금을 2013학년도 대비 1% 인하 하며 천원단위이하 절사한다.

## (5) 회의내용

위원장 : 이번 회의는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를 상세히 설명하다 - 지난 2013학년도 등록금 인하폭은 전국 3위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아울러 장학금 지급률 또한 2012학년도 대비 많은 증액을 하여 등록금 대비 약 45%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에서도 정책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자윤<sup>1/4</sup> 김지범

김현준 : 총학생회장 선배들을 만나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등록금 책정시 요구하였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등록금 책정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약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우리 총학생회에서는 학생 복지관련 예산에 대하여 별도 책정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자윤 : 학생지원처도 금일 총학생회로부터 등록금책정과 관련한 요구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총학생회의 요구내용은 매년 등록금 책정 회의에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학생복지를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총 예산중 일정수준의 학생복지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위원장 : 예, 작년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도 논의 되었던 학생복지 확충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행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시설과 관리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발전계획에 따라 시설 개선사항은 추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자윤 : 지난 기관평가 인증 평가항목에도 학생복지관련 집행금액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평가 인증 평가항목처럼 전체 예산 중 일정 퍼센트를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을 확정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 기존 예산에도 학생복지관련 항목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에서 학생복지 항목이라고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되지 않아 학생복지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각 단위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학생복지 예산 내용을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윤 :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김강진 : 교비회계 예산편성에 계정과목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항목으로 변경이 불가능 한 부분입니다. 다만 2014년도 교비회계부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학생복지 사업으로 된 예산은 2014년도 예산부터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장 : 등록금 심의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전체 큰 틀을 결정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 토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이 진행중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시설(건축)과 관련한 사항의 허가부분이 해결되므로 2014학년도부터는 탄력을 받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큰 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위

구자윤 <sup>2/4</sup> 김희민

원으로부터 외부 경제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 현재 기업에서도 물가상승 2.5%, 임금의 1~2% 인상, 공공요금도 2014년도 들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비 및 관리비 절약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기업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폭의 등록금 인하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등록금 인하는 대학운영과 교육의 질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비 및 관리비의 절감을 통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장 :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1% 인하를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대폭 인하가 있었고, 특히 1%를 인하하는 대신 장학금 지급율을 좀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약 13%, 2013학년도에는 약 15% 수준으로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종석 :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인하에 따라 특성화사업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고, 등록금 수입이 약328억에서 295억정도가 되며, 46% 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치라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학생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 그렇다면, 총학생회의 요구 중 확답을 해줄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 운동장 개보수 부분은 2013학년도 진행 중 멈춘 상태입니다. 운동장 개보수를 진행하다보니 건축 허가 사항이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건축 인허가 부분은 현재 교육청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3학년도 토지매입이 조만간 완료 된다면 진행되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대학에서 무조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윤 : 그럼 2014학년도 등록금은 2013년도 등록금 대비 1% 인하로 결정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생각은 어떨습니까?

학생위원들 :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 네, 그럼 2014학년도 등록금은 2013학년도 등록금 대비 1% 인하하는 것으로 하고 천원단위 절사 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윤<sup>3/4</sup> 김지민

2014년 1월 6일

## 오산대학교 등록금심의 위원회

김기현<sup>C 4/4</sup> 장지민